

##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이 희 을\*

- I. 머리말
- II. 공산주의세력의 코민테른 민족개념 및 민족혁명운동론 수용
- III.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의 목적
- IV. 민족협동전선전술 중심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 V.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공산당의 민족해방운동은 1920년대 이전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의 성격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기존 연구는 민족해방운동을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된 독립지향 민족운동의 성격으로써 파악한 바 있다. 그런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계열, 특히 공산주의세력은 코민테른에서 비롯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이들의 민족개념과 활동전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환했고, 식민지 조선 내 민족운동세력의 종족문화적 민족개념 및 민족운동 방향과 달랐다.

조선공산당은 ‘조선민족’의 형성 원인을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내 일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heeul13@gmail.com

제의 정치경제적 압박 결과로 파악했고, 이로써 형성된 민족운동을 공산주의운동의 대열에 편입시켜 민족해방운동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비록 민족협동전선 운영 방향을 놓고 조선공산당 내 ML파와 반ML파간의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공산당 민족해방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레닌·스탈린의 Nation 및 National movement 이론, 조직적 배경은 코민테른의 지시 및 공인이었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에게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이용 대상이었고, 종족문화적 민족개념 및 이에 기초한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은 ‘부르주아민주주의 운동’과 동일한 것으로 극복 대상이었다. 이는 조선공산당 및 공산주의 세력이 식민지 조선 내 민족주의 조류에 입각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별개의 특성을 드러낸다.

◆ 주제어

---

조선공산당, 코민테른, 민족, 민족혁명운동, 민족협동전선

## I. 머리말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민족운동(National movement)은 1910년대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을 거치면서 대체로 3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독립지향 민족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와 천도교 구파, 일부 기독교 및 유림단체, 그리고 安在鴻·申錫雨와 같은 언론인들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개량지향 민족운동으로, 대표적인 단체 및 인물로 천도교 신파·金性洙·宋鎮禹·李光秀와 같은 교육·언론인 등이 있다.<sup>1)</sup> 셋째는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으로, 식민지 조선 내 공산주의세력<sup>2)</sup>이 이를 주도하고자 했다. 이들은 공산주의인터내셔널(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이하 코민테른)의 영향력 아래 원칙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혁명 이행을 지향했다. 그런 점에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고려공청)의 창립은 공산주의세력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이자 식민지 조선 내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첫 단계, 즉 '민족해방운동'의 시작점이었다.

그동안 일부 선행연구는 민족해방운동을 '한민족'의 민족운동이자 식민지 조선 내 독립운동의 전체적 성격으로 규정해왔다. 이준식은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서 3.1운동의 물결이 짧은 고조 끝에 곧 쇠퇴하게 되자 ... 새로운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민족해방운동이 사회주의운동이었

1)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대한제국 시기부터 형성된 민족주의의 조류를 계승한 민족운동 중 조선의 독립을 우선 지향하는 경향을 가졌던 활동을 '독립지향 민족운동'으로, 독립보다 조선민족의 개량을 우선했던 경향을 가졌던 활동을 '개량지향 민족운동'으로 범주화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속에서 또 다른 여러 운동방향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 4장에서 후술할 바와 같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대체로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한 '조선민족'의 거취 방향을 '독립우선' 혹은 '개량우선'으로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주요 일파로는 192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활동했던 소수의 상해파 및 이르쿠츠크파 출신 운동가 등이 있고, 1923년 이후 기준으로 고려총국내지부(高麗總局內地部, 이하 내지부) 계열, 고려공산동맹(高麗公産同盟) 계열, 북풍회(北風會) 계열, 그리고 6.10 만세운동 이후 일본의 일월회(日月會) 및 일부 고려공산동맹 출신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ML파 등이 있다.

다. … 흥미로운 것은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전부터 존재하던 민족운동의 한 분파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sup>3)</sup> 윤상원은 민족해방운동의 범위를 사회주의운동은 물론 3.1운동부터 임정 및 의열단의 활동까지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sup>4)</sup> 이러한 시도의 원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세력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산주의세력의 운동방향은 성숙화한 사회주의 이론 학습 심화와 민족운동의 중요성 자각에 따라 계급운동에서 민족운동으로 변화했고, 공산주의운동도 점차 민족운동의 대열에 합류했다.<sup>5)</sup> 서중석은 “식민지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가슴에는 애국적 민족적 정서가 크게 출렁이고 있었던바 …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sup>6)</sup> 여기에 더해 이준식은 초기사회주의자들의 경우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코민테른에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sup>7)</sup>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왔던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인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의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정의는 대한제국 시기에 형성된 민족주의 조류를 배경으로 한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일부 공산주의운동가의 공산주의 수용 이전 1910년대 독립운동 참여 이력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3) 이준식,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 『내일을 여는 역사』24,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2006, 76-79쪽.

4) 윤상원, 「[근대II] 식민지 인식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모색」, 『역사학보』239, 역사학회, 2018, 59-63쪽.

5) 이와 관련하여 참고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임경석,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역사와 현실』28, 한국사연구회, 1998 ; 장상수, 「일제하 1920년대의 민족문제 논쟁」, 『사회와 역사』1, 한국사회사학회, 1986 ; 윤종일, 「1920년대 중반까지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민족문제 인식변화에 대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2 ;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 심지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인식과 논리』, 백산서당, 2015.

6) 서중석, 앞의 책, 6쪽.

7) 이준식, 「국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2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312쪽.

세력의 활동을 민족주의 조류의 연속으로써 이해하게 만든다. 그런데 공산주의세력의 활동이 민족주의 조류의 연속으로써 전개되었음을 논증하려면 공산주의세력의 민족주의 수용 및 방향 실태를 사료에 근거해 규명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1920년대에 활동한 공산주의운동가의 민족주의 인식 및 민족개념 등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하다. 반면 처음부터 민족의식이 아닌 계급의식 각성을 시작으로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했다는 고려공청 2대 책임비서 權五高에 관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sup>8)</sup> 이는 민족해방운동 실태 속 민족주의 조류의 제한적 영향력을 시사한다.

물론 공산주의세력 내부 각각의 그룹 및 운동가가 개별적으로 가졌던 정치이론, 정세인식, 민족개념, 그리고 그것들과 현실 활동 사이의 간극 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공인을 받으려고 노력한 공산주의세력의 특성상, 여기에 참여한 개인과 집단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사상적으로 충실해야했다는 점과 실제로 공산주의세력이 코민테른의 결정에 복종한 사실 등을 고려해야한다. 즉 이들의 이론과 현실 활동 사이 의도적 간극은 적어도 코민테른 및 공산당의 권위 아래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공산주의세력을 민족주의 조류의 일원으로 이해하거나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과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공산주의세력과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독립 혹은 민족주의라는 기준 아래 동일 성격으로 범주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는 1920년대 한반도 내 정치 상황의 다면적 재현을 목표로 먼저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의 이론적·실천적 성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세력이 공통적으로 지향한 활동의 실제 성격은 물론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과 함께 결성했던 민족협동전선의 향후 균열 원인도 규명할 수 있다. '민족'에 관한 개념 이해, 즉 민족개념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 내 민족운동세력과 공산주의세력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양측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였다. 이에 관해

8) 이희을, 「권오설의 민족혁명운동론 수용과 민족해방운동 전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3, 202-203쪽.

박찬승이 공산주의운동가와 민족운동가 사이의 민족개념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각 민족개념 인식의 차이점을 도출한 바 있다.<sup>9)</sup> 본고는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산주의운동가의 本陣이었던 조선공산당 차원의 민족개념을 검토한 후 당시 민족운동세력의 민족개념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공산당 및 공산주의세력이 전개하고자했던 당시 민족해방운동의 지향점과 현실 속 성격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다.<sup>10)</sup>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생산되었으며 조선공산당과 연관된 민족개념 관련 사료의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해야한다. 그 대표적인 사료로 레닌·스탈린의 민족이론 관련 저술이 있으나, 1980년대 연구의 경우 그 목적이 볼셰비키의 민족운동 성격 및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끼친 영향 분석에 집중되어있어 식민지 조선과의 연결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sup>11)</sup> 그 결과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 사용된 ‘民族’이라는 단어와 당시 러시아 및 코민테른에서 사용된 단어인 нация·nation 사이의 의미 차이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레닌·스탈린의 저작 및 코민테른 문서 원본 등의 문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 성과가 누적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코민테른에서 사용한 нация 및 nation의 의미와 1920년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사용된 ‘민족’ 용례의 연결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전술원칙, 그리

9)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0, 85-102쪽.

10) 이와 관련하여 참고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서해문집, 2008 ; 박찬승, 앞의 책 ;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5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 이윤갑, 『안재홍의 근대 민족주의론 비판과 신민족주의』, 『한국학논집』5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최문형, 「천도교의 개혁사상과 문화·민족 공동체 운동」, 『동학연구』16, 한국동학학회, 2004.

11) 이와 관련하여 참조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홍성수, 「레닌의 민족 문제론에 대한 연구」, 『사회와 역사』18, 한국사회사학회, 1990 ; 민경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사총』5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1 ; 박상철, 「레닌의 혁명 사상과 민족자결주의: 제1차 세계대전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77, 호남사학회, 2020.

고 이에 대한 민족운동세력의 반응과 코민테른 사이의 연계성을 검토함으로써 조선공산당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레닌과 스탈린의 민족개념 및 민족운동 정의와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 그리고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그 수용 면모를 조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선공산당과 민족운동세력의 민족개념 및 활동이론, 그리고 그 전술적 실천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조선공산당 민족해방운동의 실질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당시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의 민족개념과 민족운동 성격을 검토한 다음 조선공산당 민족해방운동과 비교하고, 민족협동전선전술의 실태를 조명함으로써 조선공산당 민족해방운동의 실질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공산주의세력의 코민테른 민족개념 및 민족혁명운동론 수용

공산주의세력 및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그들이 전개하고자 했던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상세히 규명하려면 먼저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론을 파악해야 한다. 민족혁명운동론이란 1920년 제2차 코민테른 세계 대회에서 정식화된 후진국 및 식민지 지역 내 공산당의 혁명운동에 관한 이론이다. 식민지 조선 내 공산주의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코민테른은 러시아 10월 혁명 성공 이후인 1919년 창립된 국제 규모의 공산당 협의체로, 특히 레닌을 위시한 러시아 볼셰비키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레닌의 Nation(нация) 관련 이론은 스탈린이 제시한 Nation의 정의와 National movement 형성 과정에 영향을 받아 심화하면서 정립되었다. 그리고 코민테른 세계 대회를 통해 후진국 및 식민지 지역 공산주의운동 관련 전술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력 아래 편입한 한인 공산주의세력은 자연스레 이들의 Nation 개념을 민족개념으로써 받아들였고, 그들이 전개한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도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론의 영향을 받았다.

## 1. 레닌·스탈린의 Nation 관련 이론과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론

레닌은 Nation을 근대자본주의사회 이행 과정 속에서 파생한 사회변혁체로 인식했다. 그는 1914년 「The Right of Nations to Self Determination」을 통해 National movement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명시했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는 단일 언어가 통용되는 “정치적으로 통일된 영토”를 가지면서 자본주의에 조응한 자유로운 교역 및 인구집단화, 시장과 기업, 소비자의 긴밀한 연결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부르주아계급은 National movement를 통해 Nation state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다.<sup>12)</sup> 즉 그는 Nation을 생산력 증가와 생산관계 재편에 따른 생산양식의 변화 과정 속 “봉건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결정적 승리”에 기여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로 인식한 것이다.

레닌의 Nation 개념은 스탈린의 작업에 영향을 받은 바 있다.<sup>13)</sup> 스탈린은 1913년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에서 Nation(нация)을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Nation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공동의 언어·영토·경제적 생활·심리적으로 만들어진 공동 문화 등으로 형성된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자본주의의 부상 시기에 속하는 역사적 범주” 즉, 근대자본주의사회에 탄생한 정치적 공동체로 인식했다.<sup>14)</sup> 다

---

12) V. I. Lenin, Lenin Collected Works 20. 1914b, p.393 ; В. И. Ленин,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1914. [[https://ru.wikisource.org/wiki/О\\_праве\\_наций\\_на\\_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_\(Ленин\)](https://ru.wikisource.org/wiki/О_праве_наций_на_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_(Ленин))]

13) 레닌은 1914년 “The National Programme of the R.S.D.L.P.”에서 “최근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문헌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사회민주주의 민족강령의 근본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 중 스탈린의 논문은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평가했다(V. I. Lenin, Lenin Collected Works 19. 1914a, p.427).

14) J. V. Stalin,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1913.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stalin/works/1913/03a.htm#s1>) ; И.В. Сталин, “Мар



만, 그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경우를 분리했다. 그에 따르면 서유럽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은 봉건제를 극복하면서 단일한 Nation을 형성했고, 곧 단일한 Nation state를 구성할 수 있었다. 반면 동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나 러시아 제국은 Multi-national state(международ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가 되었다. 동유럽의 경우 자본주의가 약하게 전개되고 봉건주의가 잔존한 상태에서 여러 Nation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의 강한 Nation이 이른바 '중심 Nation'으로 변화해 훗날 Nation으로 전화하려는 여러 집단을 종속시킨 것이다. 이때 "독립적 삶에 눈을 뜬 Nations는 더 이상 Independent national states(независим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를 형성할 수 없었다."<sup>15)</sup> 다시 말해, 스탈린에 따르면 Nation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그것도 상황에 따라 각 지역 Nation이 상호간 지배-피지배 관계를 잉태한 상태로 형성되는 것이다.

스탈린은 National movement의 특질과 지역별 성격도 규명하면서 Nation의 특징을 확정했다. 그는 동유럽 National movement의 일반적인 양상을 제시하면서 지배 Nation과 피지배 Nation의 역학관계를 제시하고 National movement의 발생 시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Multi-national state의 '중심 Nation', 다시 말해 '지배 Nation'이 "반봉건(semi-feudal)·반부르주아(semi-bourgeois) 관료제"를 통해 다른 '외부의 젊은 부르주아계급'을 억압한다. 억압은 경제적 원인에서 시작해 언어·이동·종교·교육·상업 등 전 분야에 적용되면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지배 Nation으로부터 시작된 분쟁은 억압받는 부르주아계급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Fatherland', 즉 조국을 위한 '대의'를 Native folk, 즉 '토박이'인 대중에게 호소하도록 만든다. 대중들이 항상 이에 호응하지는 않지만, 만약 여기에 호응한다면 National movement가 시작되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공식에 따르면 Nation은 경제적·정치적 목

---

КСИЗМ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1913. ([https://www.marxists.org/russkij/stalin/t2/marxism\\_nationalism.htm](https://www.marxists.org/russkij/stalin/t2/marxism_nationalism.htm).)

15) J. V. Stalin, OP. Cit. ; И.В. Сталин, OP. Cit.

적에 따라 한 지역의 군중을 언어·문화·관습 등의 요소로 묶고자 한 부르주아계급의 시도로부터 형성된 일종의 ‘역사적 상징’이며, National movement는 부르주아계급이 형성한 일종의 역사적 상징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다.

스탈린은 National movement의 성격 형성 과정에 관해서도 의견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National movement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그 강도와 성격이 결정되며, “집단적 성격을 띠며 꾸준히 성장하거나 사소한 충돌로 전환되어 간판을 둘러싼 다툼과 싸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National movement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독립운동 혹은 해방운동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National movement의 강도는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농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농민의 경우 지배 민족의 억압 분야와 강도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경우 “계급적 적대감 발달 정도와 계급의식 및 프롤레타리아계급 조직 정도”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sup>17)</sup> 이에 따르면 최고조에 다다른 National movement는 부르주아계급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계급 및 농민 등 광범위한 계급계층도 지배 Nation의 억압에 맞서는 형태이며, 이때야 비로소 지배 Nation을 향한 억압 Nation의 투쟁이 전개된다.

스탈린의 National movement 이론에 따르면 그 발생의 핵심은 Nation 형성의 주역인 부르주아계급과 타 Nation의 부르주아계급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Multi-national state 사례의 경우 선진 Nation이 주변에 비해 빠르게 형성, 성장하여 후진 Nation과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한 상태라는 배경이 있다. 그에 따라 각 Nation 내 부르주아 상호간의 대립관계가 형성되면서 National movement의 발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조의 National movement는 부르주아계급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계급 및 계층의 참여로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선진 Nation을 향한 후진 Nation의 투쟁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

16) J. V. Stalin, OP. Cit.

17) J. V. Stalin, OP. Cit.

레닌과 스탈린의 Nation 및 National movement 이론은 후진국 및 식민지 지역의 혁명운동 전개를 위한 코민테른의 전술 결정으로 연결되었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주도적으로 피지배 Nation의 National movement 성격을 선진 Nation과의 투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전화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코민테른은 1920년 제2차 세계 대회에서 National Revolutionary Movement 개념을 정식화하고 그 실천을 위한 전술을 제시했다.

2차대회 당시에 발표된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 Questions」에 따르면, 레닌은 “후진국의 주민 대다수가 부르주아적이자 자본주의적 체관계의 대표자인 농민으로, 모든 National movement는 부르주아민주주의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sup>18)</sup> 이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또 부르주아계급이 농민 및 광범위한 피착취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육,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식민지 지역의 부르주아민주주의운동만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진국 및 식민지에서의 부르주아민주주의운동은 따로 ‘National Revolutionary Movement’, 즉 ‘민족혁명운동’으로 표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sup>19)</sup>

「Draft Theses on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 For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은 민족혁명운동을 위한 전술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테제는 전 세계 공산당의 Nation 문

18) 같은 글의 내용에 따르면, 인도의 공산주의자 마나벤드라 로이(Manabendra N. Roy)는 공산당이 후진국 및 식민지 지역의 부르주아민주주의운동을 언급할 경우 개량주의운동과 혁명운동 사이의 구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레닌은 그러한 구별이 제국주의 부르주아계급의 개량주의운동 이식 노력이 원인이 되어 현실에서 분명히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억압 국가의 부르주아계급이 National movement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제국주의 부르주아계급과 협력해 혁명계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 V. I. Lenin,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 Questions”, 1920b.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0/jul/x03.htm#w3>)

제 적극 개입에 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Nation 간의 평등을 “추상적 또는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본성”이었다. 때문에 코민테른은 Nation 정책을 구상할 때 지주 및 부르주아계급 전복 지향 혁명 투쟁을 위한 모든 프롤레타리아연맹 및 Nation 속 노동대중의 연합에 의존해야 했다. 그런데 봉건제관계가 우세한 후진국 및 식민지 지역 공산당의 경우 테제 11번째 항에서 제시된 전술 원칙을 유념해야 했다.<sup>20)</sup> 그 내용은 앞서 레닌의 민족·식민지 문제 보고에서 제시된 민족혁명운동의 두 가지 경우, 즉 식민지 내 피착취대중 결집 및 조직화를 전개하는 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이에 친화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운동의 지지 결정에 호응했다.

민족혁명운동과 그에 관한 전술원칙의 목표는 레닌과 스탈린의 Nation 및 National movement 관련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1910년대 초에 확립된 이러한 도식은 1919년 이후 코민테른을 통해 후진국 및 식민지 지역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인 전술수렵에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정식화된 민족혁명운동론의 당면목표는 National movement의 주도권 확보, 목표달성을 위한 전술 원칙은 피억압 부르주아계급 이용과 포섭 시도였다. 그리고 궁극 목표는 “지주와 부르주아의 타도”와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였다.<sup>21)</sup> 이 원칙은 적어도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세계대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0) 11번 항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해방운동(bourgeois-democratic liberation movement) 실천의 적극 지원, 종교 관련 중세 영향과의 투쟁, 후진국 농민운동 특별지지 및 혁명화, 프롤레타리아 운동 자주성 무조건 유지를 전제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운동과의 일시동맹, 정부(state)의 독립과 건설 원조를 내세운 제국주의의 기만성 폭로 등의 전술원칙이 있었다[동녘 편집부 편, 『코민테른 자료선집』 3, 동녘, 1989, 229-231 ; V. I. Lenin, “Draft Theses on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 For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20a.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0/jun/05.htm>)].

21) 동녘 편집부 편, 앞의 책, 226쪽.

## 2. 한인 공산주의세력의 민족혁명운동론 수용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을 받아들였다. 특히 당시 러시아 및 상해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세력과 공산주의 운동가는 코민테른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코민테른 조선문제위원회는 한인 공산주의세력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단일대오로서 개편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문제결정서」를 발표했는데, 이 결정서가 민족혁명운동을 직접 명시한 문서였다. 특히 1922년 12월 코민테른 4차 대회에서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조선문제결정서에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революционное движение, 즉 National Revolutionary Movement 단어 자체와 그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sup>22)</sup> 김철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결정서에 “민족운동의 지도적 결집을 축성하라”는 느낌의 내용이 있었다.<sup>23)</sup> 그는 нация(Nation)를 ‘민족’으로, Национальное движение(National movement)를 ‘민족운동’으로 인식한 것이다. 다른 공산주의운동가의 경우도 후술할 여러 문서를 검토했을 때, 그리고 코민테른의 영향력 아래에서 활동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민족’에 관한 그들의 개념도 김철수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조류와 그를 주도한 코민테른 활동의 세계적 확산은 여러 한인의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과 그 속의 민족개념 수용의 결정적 계기였다. 모든 공산주의운동가는 각자 다양한 활동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은 공통적으로 일제의 한국 병탄 이후 형성된 식민지 조선 사회에 관한 정치적·경제적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이들은 공산주의 운동 참여 이전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22) Комиссия IV конгресса Коминтерна, “Резолюция Комиссии IV конгресса Коминтерн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29] декабря 1922 г”, 1922. (<http://docs.historyrussia.org/ru/nodes/48220-rezolyutsiya-komissii-iv-kongressa-komintern-a-po-koreyskomu-voprosu-29-dekabrya-1922-g#mode/inspect/page/2/zoom/4>)

23) 조철행,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8, 308쪽.

사회문제를 주로 경제구조 문제로 연결해 이해하려는 경향을 띠었다. 이러한 경향은 車今奉, 권오설 등과 같은 빈곤한 집안 출신뿐만 아니라 金丹治·김철수·안광천·崔昌益·金俊淵 등의 부유한 집안 출신 활동가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sup>24)</sup> 물론 민족주의 조류를 먼저 접한 이들, 특히 임정 관련 활동을 전개했던 김재봉·金璟載·金翰·趙東祐 등의 인물도 공산주의 세력 내에 존재했다. 이들도 임정에서 이탈한 뒤 사회주의를 접하면서 경제구조 중심의 사회경제 인식을 중시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와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 조류는 각각 유물론 중심 경제구조 변화 분석에 입각한 역사 발전 과정 및 이에 기초한 정치변혁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역사발전’ 이행을 위해 정치변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여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했고, 사회주의를 통해 당시 식민지 조선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사회문제 발생 원인으로 연결해 정치변혁활동의 당위성을 형성했다. 그렇게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코민테른과 연결된 한인 공산주의세력은 일본제국의 국가 체제와 경제구조는 물론, 기존 한반도 내 사회의 이른바 ‘불건적’ 사회경제적 요소 철폐를 지향했다. 이를 위해 한인 공산주의세력은 코민테른의 상당한 관여 및 지시 아래 식민지 조선 내 모든 공산주의세력을 통괄한 당조직 결성에 노력했

---

24) 차금봉은 기관차화부 출신 노동자로 1920년에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하면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권오설은 가난한 한학자 집안 출신으로 안동에서 교육활동을 펼치다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에 참여하면서 사유재산의 타파를 주장한 바 있다(이희을, 앞의 논문, 187쪽). 김단야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한학과 신교육을 경험하고 1917년 일본 유학을 가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상해로 유학을 간 뒤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김철수는 와세다대학 재학 중 일본의 사회주의자 고토쿠 슌스이의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사회의 경제구조를 이해한 뒤 1915년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에 사회주의자로서 가입한 바 있다(박종린,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사회주의사상 수용과 “김철수그룹”」, 『史林』30, 수선사학회, 2008, 157-165쪽). 안광천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1923년 김해청년회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북성회에 가입해 사회주의를 본격 수용했다. 최창익은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고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학식과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김경재는 일본을 거쳐 독일에 유학하면서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고, 1925년 4월 창립하고 1926년 3월 코민테른의 정식 지부로 공인된<sup>25)</sup> 조선공산당은 그 노력의 결과였다.

### III.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의 목적

조선공산당은 레닌과 스탈린의 Nation 개념 및 National movement 이론, 그리고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론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들은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자본주의 유입 및 형성 과정으로써 이해했고, 그 과정에 따라 한인 사회가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억압받으며 민족관념 형성과 민족해방운동 과정으로 나아갔다고 인식했다. 이 인식은 당 주도 세력이 내지부 계열에서 고려공산동맹 계열 및 ML파로 바뀐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때 이들은 민족을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 형성과정에서 파생한 정치경제공동체로 정의하면서 민족운동을 국제적 정치운동이었던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운동에 연결시켰다.

#### 1. 고려공산청년회의 민족개념 및 민족해방운동 원칙

조선공산당과 그 산하 단체에서 민족개념과 민족운동에 관한 정의를 가장 먼저 명시한 단체는 고려공청이었다. 朴憲永·김단야·권오설 등 주요 간부 전원이 내지부 계열로 구성된 이들은 창립대회에서 민족운동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음은 고려공청 창립대회 기록문서 중 민족운동 관련 내용 일부로, 각각 러시아어와<sup>26)</sup> 국문으로<sup>27)</sup> 작성되었다.

25) 강성희, 『러시아문서번역집』 21, 선인, 2015, 91-93·110-111쪽.

26) 이완중, 『러시아문서보관소 자료집』3, 한울아카데미, 2022, 250-251쪽.

27) 박현영, 「高共靑創立大會 決意事項抄」, 1925.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851&tabNodeId=NODE03888815#none>)

<표 1> 고려공청 창립대회 보고서의 러시아어 작성본과 국문 작성본 비교

러시아어 작성본 번역문	국문 작성본
민족운동은 조선 청년운동의 중대 문제 중 하나이다. ... 조선의 완전한 해방은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근본적 변화 후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으며, 조선의 혁명운동은 일본 프롤레타리아트 및 식민지 인민들과 긴밀히 묶여서 그들의 일반적 혁명운동 과정을 따라갈 것이라는 тезис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민족운동의 과제는 제국주의에 불만을 품은 분자들 모두가 연합한 민족통일전선을 수립하는 것이다. ...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일본제국주의를 폭파하고, 그럼으로써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을 촉진하는 폭발물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은 일본 전체의 운동에서 분리할 수 없는 예비대가 되어야 한다. ... 프롤레타리아 운동과 민족운동의 패권자는 당연히 조선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야 한다. 그는 민족혁명단체들과 블록을 형성하며, 일본제국주의에 불만을 가진 분자들을 모두 이용하며 민족혁명전선을 수립한다.	민족운동이 그 주요항목인 동시에 극히 신중한 태도로서 요할 것은 체언을 필요하는 바이다. ... 일본의 경제 및 정치조직이 근본적으로 변혁되는 때가 아니면 고려민중의 절대해방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혁명운동은 ... 필연적으로 일본혁명과 병진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고려의 혁명은 공산주의자만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일본제국주의에 반항하는 것은 전부 망라하여야 될 것이니 그 리하여야 일본혁명에 도화선이 되고 또 거기에 강대한 응원대가 되는 것이 큰 임무라 아니할 수 없다. ... 고려혁명의 주력대는 물론 고려의 노력군중이 될 것이요 따라서 고려혁명의 방향은 다수 노력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할 것이다. ... 해외에 재한 혁명적 민족주의자 및 혁명적 종교단체(예컨대 천도교 등)와는 협동전선을 공고히 하여 될 것이며 우경문화운동자 및 기타 일본침략주의에 반항하는 모든 것들을 견제하고 이용하여야 될 것이다.

두 문서는 자세한 서술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무산자계급 중심의 식민지 혁명운동 전개 및 ‘민족혁명협동전선’ 수립의 결의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러시아어 작성본에는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국문 작성본의 단어는 맥락상 “고려의 혁명운동” 혹은 “고려민중의 절대해방”에 해당한다. 각 작성본의 표현은 얼마간 차이가 있으나, 각 작성본은 기본적인



으로 고려공청의 조선 프롤레타리아계급 중심의 민족혁명전선 수립을 전제한 민족해방운동 혹은 “고려의 혁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눈여겨볼 점은 민족해방운동 혹은 “고려의 혁명운동”에 관한 인식이다. 이들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이 일제의 붕괴 및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이 단순히 조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일제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일본혁명의 단계로 설정된 것이다. 즉 “고려의 혁명운동”, 민족해방운동은 식민지 조선의 해방뿐만 아니라 일본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중심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모든 것을 망라한 ‘민족혁명협동전선’ 결성을 지향했다.

고려공청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제국에 종속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유입을 통해 단일한 ‘민족 관념’ 형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고려공청과 민족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민족개념과 식민지 조선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을 설명했다.

1. 일본 자본은 높은 이윤과 상품 판매 시장 및 값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을 장악하고 자기 식민지로 삼았으며, 조선 인민을 노예로 만들었다. ... 3. 일본 자본은 조선 인민을 정치적으로도 노예화했다. ... 4. 민족해방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압제에 대한 사회적 항의 표시이다. ... 6. 박해자들에 대한 전 민족적 증오는 3월 봉기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사회집단 사이의 모순을 호도했으며, 완전한 하나의 민족 이익에 관한 관념을 조성하였다. 7. 3월 봉기 이후에 민족해방운동의 파도가 현저히 줄었다. ... 민족해방운동의 조직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분출된 “개별적인 무질서한 시위(разрозненные партизанские выступления)”는 실패로 돌아갔다.<sup>28)</sup> 8. ... 민족해방운동의 사회적 토대가 변화하고,

28) 이완중은 разрозненные партизанские выступления를 “개별적이고 분산된 의병투쟁”으로 번역했으나, 3.1운동 이후의 식민지 조선 상황을 설명하는 맥락을 가진 전개에서 ‘의병투쟁’이 나오는 것은 어색하다. 이때 복수형인 партизанские의 원형 партизанский이 ‘빨치산의·유격대의’와 더불어 ‘무계획의’라는 뜻도 포함되는 점, в выступлении가 ‘시위’ 혹은 ‘공연’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무질서한 시위’ 혹은 ‘개별적인 유격전’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최대

계속된 투쟁을 위한 혁명 에너지의 결집과 조직화 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대지주, 부르주아지, 빈곤화된 농민과 노동자들의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기초해서 민족-혁명운동에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큰 틀에서 완성되고 있다. ... 10. 현실의 세력 관계는 민족해방 투쟁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이 노동대중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민족해방운동의 형식적 완성과 그것의 프롤레타리아-반프롤레타리아 대중의 계급운동으로 전화를 촉진한다. 11. 민족해방운동에서 고려공청의 당면 과제는 분산된 민족-혁명적, 종교적 청년단체들을 통합하고, 올바르게 조직된 민족-혁명 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조선인 근로대중 절대다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적, 경제적 성격의 문제들을 전체 강령적 요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선인 근로 청년들을 운동에 포섭하는 데 있다. ... 민족해방운동은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향후 투쟁에 길을 댈뿐이다. ... 14. 조선의 민족-혁명운동은 전체로 혁명적이고 세계적인 노동운동과 ... 긴밀한 접촉 하에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질서를 타도할 것이다.<sup>29)</sup>

고려공청에 따르면 “일본 자본의 정치·경제적 압제”를 향한 조선인의 증오가 3.1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민족 이익에 관한 관념”, 즉 단일한 ‘민족관념’을 형성했다. 이때 “정치적, 경제적 압제에 대한 사회적 항의 표시”를 민족해방운동으로 정의했는데, 이에 따르면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이었다. 이는 스탈린의 Nation 정의 및 National movement 형성 원인 설명과 합치한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파도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무질서한 시위’는 ‘민족해방운동의 조직성’이 부재해 개별적으로 전개되면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근로대중이 가장 중요한 민족해방운동의 현실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범프롤레타리아 대중의 계급운동 전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선인 근로대중 절대다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적, 경제적 성격의 문제들을 전체 강령적 요구에 포함함으로써 근로 청년들을 운동에 포섭”할 것을 명시했다. 만약 이러한 과정들이 실현된다면, 민족해방운동은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향후 투쟁에 길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

한 재현할 수 있다.

29) 이완중, 앞의 책(2022), 258-260쪽.

정리하자면, 고려공청은 스탈린의 Nation 및 National movement 이론과 합치한 민족개념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 내 저항적 사회 분위기의 성격을 '민족해방운동의 조류'로 설정했다. 그리고 노동대중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조류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투쟁 및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고려공청의 원칙은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하려고 시도하면서 대중을 자극할 목적으로 작성된 권오설의 격고문에 적용되었다. 권오설은 격고문을 통해 “식민지에서는 민족해방이 곧 계급해방 … 정치해방이 곧 경제해방 … 식민지민족이 총체적으로 무산계급이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순종의 인산일에 고려공청과 일부 천도교 단체, 그리고 학생단체를 동원해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sup>30)</sup> 비록 실패했지만, 6.10만세운동의 주도 시도와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격고문의 내용은 고려공청의 활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이름을 내세운 민족혁명운동론의 실천이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 2.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 전술 수립 과정

조선공산당도 고려공청과 민족개념과 민족운동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민족해방'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1926년 7월 6.10만세운동 이후 화요회 핵심간부이자 조선공산당 상해특별연락부 소속의 김단야는 「조선공산당선언」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조선공산당의 입장을 발표했다.<sup>31)</sup> 다음의 글은 「조선공산당선언」 중 식민지 조선의 상황 분석 및 민족해방운동 전개 배경에 관한 부분이다.

30) 이희을, 앞의 논문, 198-200쪽.

31) 당시 김단야는 조선공산당 기관지 『불꽃』의 주필로, 적어도 「조선공산당선언」의 작성 및 발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김도형, 「인물연구 국제공산주의자 김단야의 삶」, 『역사비평』25, 1993, 234-236쪽).

전 국민의 경제생활이 어느 하나가 일본자본가들의 장악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 이러한에도 오히려 부족히 생각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다시 그 압박기관 - 감옥, 재판소, 경찰, 헌병, 군대 및 기타에 쓰기 위하여 각종 직접 간접의 과세와 비법적 약탈로 노동민들의 어깨에 重荷를 지워 그들의 최후의 고혈을 짜낸다. 조선인민들은 정치상으로도 압박받아 보통 인권의 초보적 자유까지 가지지 못하였다. ... 조선인민들은 다시 민족적으로 억압받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강제의 동화정책으로 조선문화의 전멸에 노력하여 ... 3.1운동은 徒手혁명, 屈膝혁명이요 ... 실패되었으나 조선민족의 해방투쟁은 일보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군중을 정치적 생활로 환기하였고 ... 조선민족의 기본적 군중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민족운동을 자립적으로 진행하였다. ...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운동을 위하여 적의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조직적 희생적으로 진행함은 ... 6월운동으로 확증되었다.<sup>32)</sup>

「조선공산당선언」에는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압박이 3.1운동을 촉발시키면서 “조선민족의 해방투쟁”을 야기했다고 적혀있다. 민족해방운동 전개 이유에 관한 조선공산당의 논리 구조는 고려공청과 일치한다. 그런데 “조선인민들은 다시 민족적으로 억압받는다”로 시작한 민족 관련 서술은 고려공청의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때 민족은 언어와 역사, 문예 등과 관련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얼핏 보면 조선공산당이 종족문화적 민족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조선공산당이 3.1운동을 조직성 및 정세분석 부재로 인한 ‘徒手혁명’이자 ‘屈膝혁명’으로 인식했던 점과, “그것(3.1운동)은 실패하였으나 조선민족의 해방투쟁은 일보 앞으로 나섰”으며 “군중을 정치적 생활로 환기하였다”고 서술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공산당선언」에 따르면 3.1운동은 한계와 성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문서는 3.1운동의 한계를 단일 혁명역량 중심 조선인민 결집을 위한 조직적이며 구체적인 정세분석 부재로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32) 역사비평 편집부 편, 「자료발굴 조선공산당선언」, 『역사비평』21, 역사비평사, 1992, 350-353쪽.

“조선민족의 해방투쟁 전진”을 불러오면서 “군중을 정치적 생활로 환기”시킨 성과도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문서는 3.1운동 이후 노동자와 농민들의 자립적 활동으로 민족운동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6월운동, 즉 권오설 고려공청이 주도한 6.10만세운동 계획을 “적절한 투쟁방침”을 가진 민족해방운동으로 평가했다. 노동대중이 “군중을 정치적 생활로 환기”한 3.1운동 이후에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한 점, 6.10만세운동을 적절한 민족해방운동으로 평가한 점 등은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청의 일치한 민족개념을 보여준다.

조선공산당은 민족해방운동과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연결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이들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운동과의 연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조선공산당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대본영 국제공산당의 일본대로 조선군중을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세계 무산자혁명, 특히 일본의 그것과 또 소비에트사회주의연합공화국과 밀접한 동맹을 지어 그들의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들은 세계 대사회주의혁명의 일군단이라 승리의 보장은 여기에 있다 … 당면한 투쟁의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함에 있고 … 조선공산당은 광대한 군중의 이익을 목표로 하며 노동자와 농민들을 조직시키고 또 전조선 혁명단체들과 함께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조선독립만세 인민공화국 만세 전조선노동계급과 노력농민 만세 조선공산당 만세 1926년 7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sup>33)</sup>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 그리고 소련과 밀접한 ‘동맹’을 맺어 식민지 조선 대중의 해방운동을 지도하고자 했다. 물론 민족해방운동의 목적은 조선민족의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해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광대한 군중의 이익을 목표”로 한 노동자·농민 조직 및 전조선 혁명단체와의 민족협동전선 구축이었다. 문서의 마지막은 만세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인민공화국과 노동계급, 그리고 노력농민이 있었다. 즉 조선공산당은 세계

33) 역사비평 편집부 편, 앞의 논문, 353-356쪽.

사회주의혁명의 조류와 소련과의 연대를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驅逐과 프롤레타리아계급 중심 인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다. 이로써 민족해방운동은 단순히 민족의 독립에서 끝나지 않고 국제프롤레타리아혁명 기여로 나아가야함을 드러냈다.

「조선공산당선언」을 작성한 김단야가 관여했던 강달영 시기 조선공산당 체제는 6.10만세운동으로 붕괴했고, 이후 잔여 당원과 일부 상해파 인원 및 고려공산동맹 계열, 그리고 ML파 중심으로 김철수·안광천 시기 조선공산당 체제가 성립되었다. 김철수는 6.10만세운동을 “좌경적 모험주의가 가져온 재앙적 실패”로 비판하고 「조선공산당선언」이 새롭게 구성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 없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는 기존 조선공산당 중앙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술·조직관리 방면의 과오를 지적한 것이었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 저변확대 및 정치경제 투쟁을 위한 농민층 조직을 진행하는 동시에 천도교나 기독교 공동체의 혁명분자들을 포섭해 합법적 민족혁명당을 조직할 것을 당의 과제로 설정했다.<sup>34)</sup>

김철수의 과제 설정은 민족해방운동 진전이라는 근본적 측면에서 강달영 시기 조선공산당의 활동목적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강달영 시기 조선공산당도 1926년 “민족·사회 양 운동자들을 통일하기 위한 국민당 조직”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은<sup>35)</sup> 김철수·안광천 조선공산당의 활동 성격도 큰 틀에서 이전 당조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같음을 드러낸다. 식민지 조선 내 공산주의자 모두는 여전히 정치 무대 속에서 조선공

34) 김철수는 1927년 2월 10일 코민테른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조선공산당선언」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조선공산당선언」의 발표가 조봉암의 감수 아래 제3차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일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일들이 조선공산당 상해특별연락부와 화요회 출신 간부들의 독단적 행위 아래 이루어졌음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중앙위원회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의 과제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대중정당화를 위한 노력,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당의 사회적 토대 향상 노력, 민족협동전선 강화 노력, 반레닌적 사회민주주의의 경향 반대 투쟁에 관한 코민테른과 전연방볼셰비키공산당 절대 지지 등을 언급했다(강성희, 앞의 책, 186-189쪽).

35) 이희을, 앞의 논문, 195-199쪽.

산당 주도로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결집한 군중을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식민지 내 각각의 공산주의세력은 조선공산당의 주도권을 장악해 각자의 방식으로 민족협동전선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강달영과 김철수의 당 과제 설정은 적어도 그들 모두 '조선민족'의 형성을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내 정치경제적 요소를 통한 집단관념 형성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혁명화'시키기 위한 민족혁명운동을 목표했기에 나타난 것이다. 이때 운동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혁명적 종교단체 혹은 혁명적 민족주의 단체, 기타 협동 가치가 있는 소부르주아는 활용의 대상이었다. 다만 김철수·안광천 시기 조선공산당의 경우 김재봉·강달영 시기 조선공산당보다 민족협동전선전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현실화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조선공산당이 신간회를 통해 민족협동전선을 현실화시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려고 할 때,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1927년 4월 29일자로 발표한 「조선문제결정서」를 통해 재건된 조선공산당을 승인하면서 전술지침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선공산당에게 계급 망라의 “민족혁명전선” 수립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및 농민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혁명화한 노동자 및 농민, 즉 조직된 군중과의 관계를 통해 점차 민족주의 단체를 좌경화시켜 그들의 지도자로 하여금 ‘민족혁명투쟁’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때 대중적 민족 단체를 향한 분열 시도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이에 관해 반대 및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명시했다.<sup>36)</sup> 이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주도권 확보를 바탕으로 한 민족혁명운동론의 원칙과 일치하며, 조선공산당의 민족협동전선 중심 민족해방운동이 이 원칙에 따라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결국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선공산당의 민족협동전선전술은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의 영향력 아래 확립한 것이었다.

36) 강성희, 앞의 책, 215-216쪽.

## IV. 민족협동전선전술 중심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6.10만세운동 직후의 붕괴 이후 조직을 복구한 조선공산당은 1926년 12월 제2차 당대회를 통해 합법단체와 비밀결사의 분리 단행과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을 끌어들이는 합법 ‘민족당’ 조직을 실현했다.<sup>37)</sup> 당의 표면합법단체였던 正友會는 정우회선언을 통해 ‘발전적 해체’를 단행했고, 천도교 구파와 일부 언론인·법조인 등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즉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과 함께 1927년 2월 新幹會를 결성했다. 신간회는 현실화한 민족혁명통일전선, 즉 민족협동전선이자 표면적으로 단일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대규모의 정치단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개념과 그에 기초한 운동 방향이 병존했다. 공산주의세력과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서로 다른 민족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점차 ‘단일민족진영’을 내세웠던 신간회 활동 명분과 현실 활동 사이의 모순을 드러냈다.

### 1. 민족운동세력의 민족개념과 민족운동의 목표

공산당 및 프롤레타리아계급 주도 아래 민족협동전선의 형성을 강조한 조선공산당의 전술원칙은 민족운동세력의 적극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1925년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과 개량지향 민족운동세력,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자 등이 함께 참여한 朝鮮事情調査研究會의 민족개념 정의에서부터 그 조짐이 보였다. 이들은 창립 당시부터 공산주의를 배격하며 스스로의 역사와 고유한 민족성을 지닌 조선의 사정과 과격한 주장에 관한 가부를 조사해 그 장점을 취하고 민족정신을 保持할 것을 천명했다.<sup>38)</sup> 민족을 하나의 혈통에서 비롯하며 동일한 문화·언어·관습을

37) 윤효정, 「신간회의 창립 과정 연구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358쪽.

38)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47쪽.; 류시중 역,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106쪽.



공유하는 종족 및 문화공동체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창립을 주도한 송진우의 강한 영향력과 식민지 조선 내 복잡한 사상계를 정리해 통일된 조사 및 비교 연구를 추진할 것을 우선시하는 참여인원들 태도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sup>39)</sup>

민족개념과 관련한 저술을 남긴 이력이 있는 독립지향 민족운동가로는 대표적으로 안재홍과 李鍾麟이 있다. 안재홍은 단군의 존재를 중시하고 조선인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서술하는 등 종족적 민족개념을 드러내는 글을 여럿 발표했다.<sup>40)</sup> 이후 1932년 「朝鮮人の處地에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제구조와 사회의 변화로 나타난 자본가·노동자·농민 등은 여전히 종족적·문화적으로 하나가 된 '民族'의 구성원으로, 이해 일치의 여부에 따라 갈등과 조화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sup>41)</sup> 이종린은 한일병탄 이전 「國情神」에서 “我國四千年”·“二千萬民族”<sup>42)</sup>, 1909년 「五發」에서 “韓江山三千里骨子·韓民族二千萬精神”·“我國四千年”<sup>43)</sup> 등의 표현을 쓰면서 종족적 민족개념을 드러냈다. 이후 1910년대부터 활발한 천도교 활동을 전개한 그는 1925년 『천도교회월보』에서 천도교의 人乃天과 同歸一體 교리를 바탕으로 각종 주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大抵主義’를 내세웠다.<sup>44)</sup> 그러나 대저주의는 종교 교리에 기초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며 민족운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 민족개념에 관한 독창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던 개량지향 민족운동가 중에서도 민족개념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1925년 8월 송진우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가 있다. 그는 “조선의 장래를 논구하는데 있어 … 내부적으로 조선민족 자체의 과거역사상 흥채성쇠 인과관계”가

39) 윤덕영, 앞의 논문, 94-95쪽.

40)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너는 朝鮮人」(『조선일보』, 1925.6.19.) ; 「評壇漫筆(五)」(『조선일보』, 1926.8.08.) ; 안재홍, 1926, 「漢陽朝五百年總評」, 『개벽』 71.

41) 『조선일보』, 1932.3.02.

42) 이종린, 「國情神」, 『대한협회회보』 6, 1908.

43) 이종린, 「五發」, 『대한협회회보』 11, 1909.

44) 이종린, 「우리부터 同歸一體主義로 一體同歸」, 『천도교회월보』 180, 1925.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과거의 조선에는 … 단군대황조의 登極肇  
判하신 이후로 箕子箕準의 조선도 있었고 위만의 조선도 있었고 또한  
진한 마한 변한과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분열도 있었다”라고 언급한 뒤,  
“사천년을 통하여 역사적 변천과 정치적 興替가 반복”하였음에도 “언제  
든지 조선인의 조선이라는 관념은 없어져 본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sup>45)</sup>  
김성수, 崔南善, 崔麟 등도 이른바 ‘타협적 민족운동’에 참여 및 주도하  
면서 송진우와 합동한 만큼, 그의 민족개념은 그와 가까웠던 다른 운동  
가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개량지향 민족운동세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민족개념을 가지고 있었  
던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조선공산당과 협동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도 근본적으로 조선공산당과 다른 활동 성격을 보여주었다. 조선공산당  
은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속 일제의 전방위 압박을 한인 사회 내의 ‘조  
선민족’이란 단일한 민족관념 형성 원인으로 이해한 반면, 민족운동세력  
은 ‘조선민족’을 단군조선에서 시작된 혈연·문화·언어의 흐름의 역사적  
실체로 규정했다. 특히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이 추구한 독립은 종족과  
문화의 단일성을 중심으로 한 ‘民族’의 독립으로, 타민족을 억압하는 일  
제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하고 있었다. 따  
라서 양측의 운동 전개 주체와 극복 대상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고,  
1927년 중순에 촉발된 이른바 嶺南親睦會사건에서 서로의 차이점이 노  
출되었다.

## 2. 영남친목회사건과 민족협동전선의 균열

1927년 9월, 당시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던 안광천을 비롯한 ML과  
는 영남친목회 창립에 관여했다. 이는 민족협동전선의 외연을 넓히기 위  
한 시도로, 취지서를 통해 계급과 직위, 성별과 나이를 막론한 영남 인  
물의 단결 및 상부상조, 그리고 전민족적 사업의 분투 등의 목표를 밝혔

45) 『동아일보』, 1925.08.28.

다.<sup>46)</sup> ML파는 다양한 직위와 계층에 존재하는 여러 인물과의 교류를 통해 이들을 조선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포함시킨 후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ML파의 시도는 조선공산당 내부에서부터 격렬한 반발을 받았다. 權泰錫, 金榮萬 등 고려공산동맹 구파 계열과 金南洙, 安相吉 등의 화요회 계열은 그의 시도에 즉각 반발하면서 영남친목회의 성격이 반혁명적임을 강조했다.

김영만에 따르면 영남친목회는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에 영합하는 인물과 조선총독부 관료, 그리고 일본군 소속 군인 등이 참여한 단체로 일제의 민족혁명협동전선 분쇄공작이었다. 여기에 안광천과 ML파가 적극 참여한 것은 이 단체들의 반혁명적 본질을 은폐한 것이자 친일반동세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47)</sup> ML파의 시도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세력은 이른바 반ML파를 형성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여러 신간회지회 및 조선노동총동맹·조선농민총동맹·조선청년총동맹의 예하 단체를 동원해 '지방열단체박멸운동'을 전개했다.<sup>48)</sup>

영남친목회 창립을 둘러싸고 촉발된 ML파와 반ML파의 갈등은 식민지 조선 내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 역량 및 성향에 관한 분석을 각각 달리했고 이에 따라 전술을 다르게 수립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반ML파, 특히 고려공산동맹 구파 계열은 민족해방운동을 '민족혁명' 및 반제국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했다. 특히 조선노동총동맹·조선농민총동맹·조선청년총동맹 등의 전국 규모의 단체와 천도교 구파, 그리고 그를 아우르는 신간회를 '민족혁명'의 주요세력으로 판단하면서 이들과의 협동을 중시했다.<sup>49)</sup> 그러나 그 외 개량지향 민족운동세력과 조선총독부 소속 인물 및 단체는 제국주의에 앞장서는 반동 부르주아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적대했다. 반면 ML파는 먼저 공산당과

46) 임경석, 「1927년 영남친목회 반대운동 연구」, 『인문과학』68,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67-268쪽.

47) 이완중, 『러시아문서 번역집』22, 선인, 2015, 52-54쪽.

48) 임경석, 앞의 논문, 270-279쪽.

49) 이완중, 앞의 책(2015), 105-106·147쪽.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민족운동에 관한 확고한 주도권 확보를 우선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력의 성향을 파악해 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민족협동전선을 구성해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즉 이들은 조선총독부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인물 및 단체, 심지어 민족운동세력을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본질적으로 식민지 부르주아계급 세력으로 인식한 것이다.<sup>50)</sup>

다만 양측의 갈등은 민족해방운동 인식의 근본적 균열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식민지 조선 내 상황을 민족운동으로써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할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공산당이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사회 분위기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들의 전술 수립 및 적용상의 갈등을 코민테른의 결정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영남친목회사건 이후 ML파와 반ML파는 각각 코민테른에 대표자를 보내 상대파를 향한 비난과 자파를 향한 비난에 관한 해명,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 현황 보고 및 정세에 관한 견해 등을 전달했다. 그리고 중앙당 승인 요구, 즉 자파의 코민테른 조선지부로서의 권리 승계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sup>51)</sup> 이는 자신들의 정세 인식과 활동, 그리고 전술이 코민테른의 노선과 일치함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로, 양측의 민족해방운동 인식이 근본적으로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으로 귀결됨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양측의 보고와 요청을 접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민족혁명운동 실천을 다시 강조한 뒤 이를 실천할 새로운 조직을 세움으로써 양측의 갈등을 종결시켰다. 조선문제결정서를 통해 1928년 12월 사실상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지부 자격을 정지한 것이다. 대신 코민테른 동방비서부 산하 조선위원회가 새로운 조직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지된 조선공산당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sup>52)</sup> 조

50)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인식, 2004, 「신간회운동기 ML계의 민족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성격규정의 변화」 『백산학보』 68, 백산학회, 391-407쪽 참조.

51) 이완중, 앞의 책(2015), 45-72·91-94·95-113쪽.

선문제결정서와 같이 발표된 「12월 테제」는 민족혁명운동론의 핵심인 National movement의 혁명화, 즉 민족운동의 혁명화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무조건적인 우위 확보를 노동·농민운동을 통해 달성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sup>53)</sup> ML파와 반ML파는 이에 수긍하고 그들의 활동을 개별 차원으로 전환한 후 코민테른에서 제시한 테제의 이론과 조직적 명령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sup>54)</sup> 이는 공산주의세력이 사실상 민족해방운동의 근본적 성격을 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계급 중심 National movement, 즉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었다.

영남친목회사건 당시 민족운동세력의 경우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이 공산주의세력과 협동했지만, 실질적인 활동 성격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물론 영남친목회사건 당시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반ML파와 함께 영남친목회를 비판했다. 안재홍은 영남친목회가 지방열단체로서 파벌주의를 조성하며 민족단일당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sup>55)</sup> 당시 천도교 구파의 유력자인 權東鎭을 회장으로 한 신간회본부도 9월 29일 간사회를 개최해 지방열단체의 배척을 발표했고 곧 조선일보의 기사 「新幹本部幹事會」에 그 내용이 실렸다.<sup>56)</sup> 그런데 이들의 영남친목회 및 지방친목단체 비판 논리는 반ML파와 미묘하게 달랐다.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영남친목회와 같은 지방친목회 설립을 '지방열'의 발로로 인식했고 그것이 '민족대단결'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비판은 반ML파의 비판, 그러니까 ML파의 시도가

52) 이완중, 앞의 책(2015), 230-232쪽.

53) 테제는 식민지 조선의 공산주의세력에게 적극적인 노동운동 전개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역량강화 지도, 공산주의세력의 불세비키적 단결 및 민족운동 주도권 확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허위 폭로·농업혁명 전개·반제국주의 슬로건 제시 및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즉 민족혁명운동의 실천 등을 주문했다 [이완중, 앞의 책(2015), 216-229쪽].

5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후속 논문에서 따로 상세히 검토한 뒤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차원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이들의 활동 내용의 경우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55-116쪽 참조.

55) 임경석, 앞의 논문, 278쪽.

56) 『조선일보』, 1927.10.01.

친일반동세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랐다. 반ML파는 일본제국주의에 소속되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집단, 즉 조선총독부 혹은 일본제국에 소속되거나 도움을 주는 인물이라면 모두 적이자 ‘반동’으로 간주했다. 이에 반해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단일한 ‘조선민족’을 먼저 전제한 상황 속에서 민족보다 특정 지역 인물들의 친목을 중요시하는 지방친목회의 ‘민족단결성’ 훼손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친목회에 참여한 한인을 ‘반동’으로 지목하기보다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대단결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요소로 파악했고, 이에 따라 비판 수위를 조절했던 것이다.

공산주의세력은 소극적이면서 전체적인 운동 방향의 차이를 보였던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의 반응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ML파는 영남친목회사건 이후 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아가 코민테른의 조선공산당 지부 승인 철회 이후 혁명적 노동·농민조합운동에 집중하면서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과 별개의 행보를 보였다. 반ML파의 경우 신간회를 통해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과의 합동을 기반으로 민족해방운동 전개를 지속하려고 했으나, 조선공산당 지부 승인 철회 이후 ML파와 마찬가지로 노동·농민조합의 ‘혁명화’에 집중했다. 공산주의세력은 결국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의 민족개념과 민족운동 실천방법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공산당 및 공산주의세력의 민족해방운동 성격은 1928년 코민테른의 지시를 통해 급격하게 바뀐 것도, 코민테른의 한인 공산주의세력에 관한 지시가 급격히 ‘좌경화’된 것도, 이에 따라 ‘민족중심’에서 ‘계급중심’으로 급격히 바뀐 것도 아니었다. 코민테른은 후진국·식민지의 혁명운동에 관한 한 1920년에 정식화한 민족혁명운동론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내용은 조선공산당의 승인취소 이후 「12월 테제」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민족운동에 관한 공산당의 확실한 주도권 확보 및 혁명운동으로의 전환이었다. 조선공산당도 그 핵심 원칙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고, 민족협동전선전술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코민테른과 조선공산당은 ‘계급의식 기반의 민족운동 전개와 그 혁명

화' 목표를 견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협동전선을 이룬 조선공산당과 민족운동세력의 민족개념은 '민족'의 형성과정 설명과 그 범위설정에서 차이를 보였고, 그에 따라 민족운동의 방향성 및 성격도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때문에 공산주의세력과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이 일시적으로 단일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계속 드러났던 것이다. 결국 조선공산당은 민족운동세력의 적극 협동 혹은 굴복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내분과 경찰의 잇따른 검거로 급격히 위축된 끝에 해산되었다.

## V. 맺음말

조선공산당 민족해방운동의 전개과정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민족해방운동에서 나타나는 민족개념과 전술원칙은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의 내용과 호환했다. 그 배경에는 공산주의세력의 공산주의운동 참여 이전부터 존재했던 식민지 조선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종족적 민족개념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이들은 코민테른과 연결되면서 민족운동세력을 '공산당 중심 혁명운동'으로 편입시키려 시도했다.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은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한 Nation 및 National movement 이론을 바탕으로 후진국 및 식민지 지역 내 무조건적인 공산당 중심 혁명운동을 제시했는데, 이는 조선공산당의 민족해방운동 원칙으로 연결된다. 이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12월 테제」도 이를 재차 강조했고, 한인공산주의세력은 이를 수용해 1930년대의 식민지 조선 내 공산주의운동을 지속해나갔다. 결국 조선공산당과 공산주의세력의 민족해방운동은 레닌·스탈린의 Nation 및 National movement 이론에 해당하는 활동을 장악하려 한 식민지 지역 프롤레타리아혁명전술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운동세력, 특히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의 활동성격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조선공산당은 여러

문서를 통해 ‘조선민족’을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형성 이후 정치경제적인 원인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민족해방운동의 주요 참여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는 ‘협동대상’이었던 식민지 조선 내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의 민족개념 및 민족운동 성격과 호환되지 않았다.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종족과 문화의 동질성, 그에 기초한 ‘역사적 실체’를 강조한 민족개념을 토대로 단일한 ‘민족성’ 회복 및 강화를 목표로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간회 창립으로 현실화된 민족협동전선은 1927년 중하순에 일어난 영남친목회사건을 통해 균열 조짐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은 영남친목회사건을 계기로 민족협동전선 전술 적용 방침을 두고 ML파와 반ML파로 분열한 상태였는데,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반ML파 중심의 영남친목회반대운동에 동조했다. 그러나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은 지방친목단체 구성원이 여전히 ‘4천년 이래의 조선민족’이며 ‘민족대단결’ 훼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는 친목단체를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속 형성된 ‘조선민족’ 대열을 이탈한 ‘반민족’으로 규정했던 반ML파와 달랐다.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이 레닌·스탈린, 그리고 코민테른의 민족개념과 일치한다는 점,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론이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규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 그리고 독립지향 민족운동세력과의 적극협동관계를 수립하지 못했던 점 등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성격 고찰에 중요하다. 공산주의세력이 결집한 결과로 창립되었던 조선공산당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내 모든 정치운동을 프롤레타리아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일제의 구축은 물론 모든 민족운동세력의 접수,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입장의 ‘반동화’와 그 척결 등을 의도했던 것이다. 그 의도는 공산주의를 경계하며 종족문화적 민족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건설을 의도한 민족운동세력과 배치된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민족해방운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개념과 코민테른 민족혁명운동론의 현실화 형태로, 계급중심 프롤레타리아혁명이행을 지향한 그 성격은 종족문화적 개념으로써의 ‘민족’ 독립을 기초로 한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한 독립지향 민족운동의 성격과 달랐다.



조선공산당 민족해방운동의 존재는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 내 독립운동을 동일한 성격의 민족주의와 민족개념의 공유 상태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비록 독립운동을 전개한 모든 세력이 '민족'과 '독립'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는 각자 다른 민족개념과 민족운동 인식, 그리고 정치적 목표가 병존했기 때문이다. 조선공산당 및 공산주의세력의 민족해방운동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렇다면 당시 식민지 조선 내 정치 상황은 '항일독립'과 '일제탄압'의 양각 구도를 넘어선, 서로 상이한 민족개념 및 이에 기초한 민족운동 방향을 내세운 다각적 정치 구도의 병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일제강점기 공산주의운동의 연구가 진전된다면, 20세기 한반도 지역의 사회주의운동 및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치운동, 나아가 독립운동 등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1월 1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상북도경찰부, 『高等警察要史』, 1934.

안재홍, 「漢陽朝五百年總評」, 『개벽』 71, 1926.

이종린, 「國情神」 『대한협회회보』 6, 1908.

——, 「五發」, 『대한협회회보』 11, 1909.

——, 「우리부터 同歸一體主義로 一體同歸」, 『천도교회월보』 180, 1925.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서해문집, 2008.

강성희, 『러시아문서번역집』 21, 선인, 2015.

동녘 편집부 편, 『코민테른 자료선집』 3, 동녘, 1989.

류시중 역,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이완중, 『러시아문서번역집』 22, 선인, 2015.

——, 『러시아문서보관소 자료집』 3, 한울아카데미, 2022.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V, I, Lenin, Lenin Collected Works 19, 1914a.

——, Lenin Collected Works 20. 1914b.

김도형, 「인물연구 국제공산주의자 김단야의 삶」, 『역사비평』 25, 역사문제연구소, 1993, 234-236쪽.

김인식, 「신간회운동기 ML계의 민족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성격규정의 변화」, 『백산학보』 68, 백산학회, 2004, 391-407쪽.

민경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사충』 5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1.

박상철, 「레닌의 혁명 사상과 민족자결주의: 제1차 세계대전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77, 호남사학회, 2020.

박종린,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사회주의사상 수용과 “김철수그룹”」, 『史林』 30, 수선사학회, 2008, 157-165쪽.

- 역사비평 편집부, 「자료발굴 조선공산당선언」,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350-353·353-356쪽.
- 윤덕영,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 53, 2010, 94-95쪽.
- 윤상원, 「[근대Ⅱ] 식민지 인식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모색」, 『역사학보』 239, 역사학회, 2018, 59-63쪽.
- 윤종일, 「1920년대 중반까지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민족문제 인식변화에 대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2.
- 윤희정, 「신간회의 창립 과정 연구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358쪽.
- 이윤갑, 「안재홍의 근대 민족주의론 비판과 신민족주의」, 『한국학논집』 5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 이준식, 「국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312쪽.
- ,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 『내일을 여는 역사』 24,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2006, 76-79쪽.
- 이희을, 「권오설의 민족혁명운동론 수용과 민족해방운동 전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 2023, 195-199·198-200·202-203쪽.
- 임경석,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역사와 현실』 28, 한국사연구회, 1998.
- , 「1927년 영남친목회 반대운동 연구」, 『인문과학』 68,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67-268·270-279·278쪽.
- 장상수, 「일제하 1920년대의 민족문제 논쟁」, 『사회와 역사』 1, 한국사회사학회, 1986.
- 조철행,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8, 308쪽.
- 최문형, 「천도교의 개혁사상과 문화·민족 공동체 운동」, 『동학연구』 16, 한국동학학회, 2004.
- 홍성수, 「레닌의 민족 문제론에 대한 연구」, 『사회와 역사』 18, 한국사회사학회, 1990.

- 박헌영, 「高共靑創立大會 決意事項抄」, 1925.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851&tabNodeId=NODE03888815#none>)(검색일: 2023. 10. 11.)
- \_\_\_\_\_, 「국제레닌학교 학생신상카드」, 1929.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851&tabNodeId=NODE03888815#none>)(검색일: 2023. 10. 11.)
- J. V. Stalin,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1913.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stalin/works/1913/03a.htm#s1>)(1/10 Bar ; 3/10 Bar)(검색일 2023. 10. 11.)
- V, I, Lenin, “Draft Theses on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 For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20a.,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0/jun/05.htm>)(2·3-4/5 Bar)(검색일: 2023. 10. 11.)
- \_\_\_\_\_,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 Questions”, 1920b.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0/jul/x03.htm#w3>)(5/10 Bar)(검색일: 2023. 10. 11.)
- И.В. Сталин, Национальное движение, “Марксизм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1913. ([https://www.marxists.org/russkij/stalin/t2/marxism\\_nationalism.htm](https://www.marxists.org/russkij/stalin/t2/marxism_nationalism.htm))(검색일 2024. 01. 15.)
- В. И. Ленин,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1914. [[https://ru.wikisource.org/wiki/О\\_праве\\_наций\\_на\\_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_\(Ленин\)](https://ru.wikisource.org/wiki/О_праве_наций_на_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_(Ленин))](1/10 Bar)(검색일: 2024. 01. 15.)
- Комиссия IV конгресса Коминтерна, “Резолюция Комиссии IV конгресса Коминтерн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29] декабря 1922 г”, 1922. (<http://docs.historyrussia.org/ru/nodes/48220-rezolyutsiya-komissii-iv-kongressa-kominterna-po-koreyskomu-voprosu-29-dekabr-1922-g#mode/inspect/page/2/zoom/4>)(검색일: 2024. 01. 15.)

Abstract

## The Chosun Communist Party's Concept of "Nation" in 1920s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Lee, Hee-eul

The Chosun Communist Party'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national movement that developed in colonial Korea before the 1920s. Former researches have identified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s a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and independence movements that began during the Empire of Korea. However, the socialist faction in colonial Korea in the 1920s, especially the communist groups, expressed their political activities as a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Marxism-Leninism.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originated from the rise of ethnic-nationalism during the Korean Empire.

Chosun Communist Party understood the 'Chosun nation' as beings form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of Japan within the colonial capitalist system, and attempted to transform their national movement into a communist-centere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owever,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could not progres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ML(Marx-Lenin) faction and the anti-ML faction within Chosun Communist Party over the direc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operation Front.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despite such conflict,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on both sides was basically the same. This is because Chosun Communist Party and various communist groups within it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omintern's theoretical and organizational influence. The nation and national movement theories of Lenin, Stalin, and the Comintern we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of Chosun Communist Party, and the instructions and the recognition of Comintern were the organizational background of Chosun Communist Party. Therefore, for Chosun Communist Party, the independence-oriented national movement forces were an object of use to achieve political goals, and the ethnic and cultural concept of nation and the national or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it were the same as the 'bourgeois democratic movement' and were an object of overcome.

**keywords :**

Nation, Min-jok, Chosun Communist Party, National Revolutionary Movement, Comintern